

2015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5년 9월 2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 <보고 제95호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95호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2015년 9월 21일 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 분석시 HP필터링을 통해 추세치를 제거 할 경우 동 비율의 갭 추정치가 작게 추산되어 실제 현상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

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계신용의 경우에는 GDP외에 가처분소득 대비로도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사이클과 신용사이클이 상이할 경우 어느 정도의 겹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BIS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 경우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여부보다는 신용의 과잉팽창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경영지표 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등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성장성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S&P가 우리나라와 일부 국책은행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시 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대해 경계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은행 경영상황에 대하여 장단기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1인당 생산성 저하, 핀테크(Fin Tech) 발전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 등의 여러 요인들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은행경영 상황을 평가하고 금융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위원은 잠재리스크 요인을 포착한 경우 동 위험성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다른 일부 위원은 대외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설정시 좀 더 큰 프레임(frame)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부동산 충격,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요소 외에도 수출 악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물·금융 간 상호 증폭 가능성을 감안하여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다양한 충격 및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잠재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취약 차주 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 분석에 유용한 가계부실 위험지수의 개념을 채

택한 데에 이어 금번 분석은 최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잠재 취약 차주중 하나로 자영업자 가계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 소득, 자산간 연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가계부채 통계의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기경보 차원에서 빅 데이터(big data) 등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개별 금융기관별로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업부문 분석에 대해 기업 스스로의 유인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위원은 증권사의 채권운용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시장에서 알고리즘(algorithm) 거래, 프로그램(program) 매매 및 고빈도 거래 등의 최신 거래기법이 많이 활용되면서 어떤 계기로든 쏠림현상이 촉발될 경우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으로부터의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 금융불안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사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시스템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제어를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데이터의 자료축적과 구조적인 문제 등을 감안한 분석의 심화가 중요한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미시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경제통계국에서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고 있고, 공동검사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산업 전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지속, 낮은 생산성, 핀테크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있는

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1-2년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역마진 확대, 회계규정 변경에 따른 준비금 확충 가능성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증권사도 과도한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권별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동 위원은 중앙은행이 금융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신용정보 집중기관 진행 현황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에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규상 한국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금융안정 정책방향 제시에 큰 역할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당행의 상황판단 및 평가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 및 이슈 제기 등의 방법으로 동 회의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당행의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관련 보고내용

### 1. 거시 금융안정상황

#### 1. 시스템리스크 상황

2015년 6월말 현재 민간신용/GDP 비율은 전년말대비 상승하였으며 민간신용/GDP 비율과 동 비율의 장기추세 간 차이를 나타내는 민간신용/GDP 갭도 소폭 상승하였음. 부문별로도 가계 및 기업 모두 민간신용/GDP 비율이 상승하면서 동 갭도 플러스를 보였음

금융기관간 자산·부채 연계규모의 경우 은행·비은행간 연계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은행들 간의 연계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하였음

#### 2. 금융기관 경영상황

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자산성장세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 지표도 다소 개선되었음. 2015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음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든 업권에서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도 대체로 개선되었음

#### 3. 종합평가

2015년 상반기말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동향,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 및 금융기관 경영상황 등을 평가한 결과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중국·미국 등 관련 대외충격 요인과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의 축적 가능성에 유의하고 구축 중인 「가계부채 DB」 등을 이용하여 취약차주(저소득, 다중채무, 저신용) 및 잠재 취약차주(자영업, 고연령)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더욱 심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II. 참고 사항

-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대외충격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외화자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충격 등의 경우에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외화자금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 ☐ 이자보상비율과 유동성비율을 기준으로 업종별 부실위험기업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실위험기업의 비중이 2014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에 있으나 업종별로는 조선, 건설, 전기전자, 철강 등의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조선, 자동차, 도소매 등의 업종에서 동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 중 과거(2005년 이후)에도 한계기업 상태를 경험한 바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성적 한계기업의 수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최근 증권사의 채권 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고객상품 관련 채권 및 자기자본투자 채권 모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